

여수시 학부모,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매우 만족'

초등학교 학부모 851명 응답...만족 96%

여수시가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 1138명을 대상으로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설문을 진행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가정통신문으로 '2019학년도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사업 의견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 851명 중 814명(96%)이 서비스를 만족한다고 답했

다. 나머지 4%는 기계수리 불편, 스마트폰 구입 등의 이유로 불만족을 표했다.

이번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 152명의 건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의사항은 기계품질 및 서비스 개선, 지원 대상 확대, 무상 수리 등이었다.

시 관계자는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과속차량

계도와 우범지역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도 적극 운영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등하굣길 안심서비스는 민선7기 권오봉 시장의 역점 공약사항으로 초등학생 1, 2학년에게 기본통화, 음성문자,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단말기와 월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관내 34개 초등학교에서 학생 1138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구례군-백두대간수목원

종자보존 업무협약 체결

구례군은 20일 경북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 아시아 최대 수목원으로 알려진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종자보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리산 야생화 종자보존 및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생물다양성 활용과 산림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시드볼트 중복보존 등 각 기관의 상호발전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구례야생화연구소 보유 산림식물종자 시드볼트 중복보존 △산림식물 종자 수집 및 증식 △종자와 표본을 포함한 식물정보 교류 △산림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및 공동연구 △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의 공동활용 등이다.

지리산권 대표 자생식물인 히어리, 노고단원주리, 갯쟁이풀, 땅나리, 미선나무, 습마 등 200여종 300점을 시드볼트에 영구보존 기록하였으며, 향후 구례군을 대표하는 산수유나무의 보존을 위해 구례군 산동면 계척에 있는 할머니 산수유나무, 할아버지 산수유나무의 종자도 기탁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그동안 야생화 생태특구, 야생화연구소 및 한국야생화박물관 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야생화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오고 있어 앞으로도 생물종 다양 유지의 중요성과 지리산권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에 있어 구례군이 앞장설 것이다"라고 전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즐겁게 즐기는 꿀팁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에서 열리는 제7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동물영화제이다.

2013년 1회 당시 국내 유일한 동물영화제였던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올해 7회째를 맞이하며 '함께'의 대상을 동물에서 생태와 자연으로 넓혔다.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반려동물은 물론, 지구라는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되짚어보고 공존의 가

치를 전하는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 '푸른 심장'을 비롯한 22개국 71편의 작품은 상업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채로운 주제와 장르로 구성되어 재미를 더한다.

제7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를 즐기기에 앞서 꼭 알아야 할 마지막 포인트는 공연, 전시, 체험을 넘나드는 다양한 볼거리와 부대행사이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펼쳐지는 야외공연은 한여름 영화 축제의 백미가 될 예정이다. 김수정 감독의 '아기공룡 둘리·열음별 대모험: The Little Dinosaur Dooly'를 비롯, 남아공 초원의 흰 사자 찰리와 소녀의 우정을 그린 '화이트 라이언 찰리', 전 세계 2억 달러 흥행작 '베일리 어게인'이 순천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상영된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문화의 거리에 조성되는 영화제의 거리에서는 풀마켓, 보이는 라디오, 인생 사진 3컷, 동물 타로 체험, 반려동물등록제 홍보, 야생동물 보호 홍보 및 유기견 분양 추진, 반려동물 동반 놀이마당 등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의병의 도시' 보성군,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



남도의병의 중심 보성군이 일본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보성군은 최근 사무기기, 농기계, 보안 시스템 등 20억 원이 넘는 일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왔으나, 앞으로 일본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국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

키로 했다.

또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공사 발주 등 보조사업 추진에서도 보조사업자가 공감·동참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민간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보성군은 범군민 운동의 일환으로 기관·사회단체와 함께 일본여행 안가기, 일본제품 안사고 안쓰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

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캠페인 수준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개를 위해 불매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일본기업이나 일본제품 공공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보성=인구일 기자

'고흥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접수

고흥군은 오는 11월 1일 '제45회 고흥군민의 날'을 맞아 시상하게 될 고흥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교육문화·체육, 사회복지·산업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쌓아 고흥군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랑스러운 군민이 추천대상이다.

수상 후보자는 심의일 현재 3년

이상 고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고흥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생인사로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적이 현저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의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각급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은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 공적개요서, 명함판 사진, 자체사진 심의의결서, 사실조사 확인서 등 공적 증빙자료

(활동사진, 보도자료 등)를 첨부하여 추천하면 된다.

최종 수상대상자는 오는 10월 중 군민의 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심사 결정된 후 '제45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민의 상은 지금까지 중요무형문화재 명장 해 김연수·송순섭, 프로레슬러 해 김일, 화가 해전경자, 축구선수 박지성 등 고흥의 명예를 드높인 인물들로 45명을 배출한 바 있다.

고흥=한윤섭 기자

곡성군, '과수화상병' 유입 방지 대응 교육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의 지역 유입 방지를 위해 곡성군이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에 나섰다.

지난 20일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에서는 약 50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강사로는 사과 재배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사과 주산단지의 농업마이스터가 나서 과수화상병 예방 및 방제 교육과 함께 고품질 다수확 사과 재배 기술에 대해 강의했다.

과수화상병은 한 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다. 따라서 철저한 예방과 사전방제가 중요하다.



방제시기에 맞춰 사전 약제방제를 실시하고 농작업에 사용하는 전정·적과가위 등의 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세균)의 감염을 막아야 한다.

곡성=김광휘 기자

광양시 '농부들의 웰니스 팜앤파티' 개최

이슈 먹거리 발표

광양시는 22일부터 3일간 광양읍 서전 고수부지에서 '별빛 흐르는 한여름 밤, 광양농부들의 웰니스 팜앤파티'를 개최한다.

'웰니스 팜앤파티'는 광양 농·특산물 판매와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제품에 대한 체험을 통해 농촌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광

양시 6차 산업 네트워크와 함께해 온 고객들을 초청하여 광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감사하는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첫날 개막행사는 전남을 대표하는 프로축구단인 '전남드래곤즈' 선수단이 팬 사인회가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웰니스 팜앤파티들이 협력하고 함께 개발한 이슈 먹거리를 발표한다.

광양의 새로운 특산물이 될 '핫

렌드 먹거리'로 선조들의 가공방식을 연구해서 새롭게 개발한 섬진강 냉(냉)채점국과 고단백질 식품인 달팽이를 직접 생산하여 개발한 에스카르고(달팽이 요리) 스파게티, 새싹삼을 이용한 새싹삼 밀크셰이크와 새싹삼전 등을 선보이게 된다.

강금호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웰니스 팜앤파티들과 지속적인 먹거리 개발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관광 활성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지원
-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